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송 요 셉

제 1 강의 : 아담과 이브의 창조 역사에 나타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기도와 인사◀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800 회 정도가 나옵니다. 초림에 대한 예언이 300 회,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500 회 정도됩니다.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마흔 한 가지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약은 다 강해했고, 구약은 "창세기/출애굽기/여호수아/요기/시편/솔로몬의 노래(아가)"를 강해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성경을 공부하면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축복이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하여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4 장 44 절, 45 절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 말이니라"고 하시고 그 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된 성경에서 못 만나면서 봤니 들었니 하며 만났다고 하는 현실◀

구약은 전체가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가서로 되어있고, 특별히 '모세오경'은 '토라'로 불리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가 기록되어있다』고 누가복음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눈 먼 장님입니다. 옛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구약의 그리스도를 못 봤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 성경을 읽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 들을 수가 없으면 그 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 믿을 수가 없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영생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미혹하는 영에 속아

잘못된 거짓일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의 많은 교인들도 그렇지만, 아직도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전도합니까?

1

구약만을 믿는 그들에게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리새인들이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못 읽게해놨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책은 금서입니다. 읽으면 큰일나는 겁니다. 읽으면 출교당하는 겁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출회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유대인들도 구약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믿습니다. 예수가 누군인지도 모르는데, 아무도 가르쳐주지를 않고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라고 합니다. 가르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알게 된 유대인들은 생명을 내놓습니다. 요즘의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오늘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그 분을 말씀 가운데 모셔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다가 뭘 보고 들어야만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 기적과 표적만을 좋아하며 교인의 냄새만 풍기고 예배만 드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공부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말씀 1: 창세기 2 장 20 절~ 25 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이 자기를 위해 돕는 자는 찾지 못하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 말씀을 바꾸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만난 여인은 여기서 컬럼비아 대학원까지 나오고 유대인의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말씀이 자기들의 토라에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토라에는 하나님이 사람 하나를 만들어서 반으로 쪼개가지고 “너는 남자, 너는 여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기가막힌 얘기입니다. 성경을 바꾼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예수를 못 보는 것입니다. 20 세기에 들어와서 토라를 쓴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바꾸어놓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바꾸면 그 다음부터는 바꾸기가 쉽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법: 구약과 신약을 연관지으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에베소서 5 장 31 절~33 절에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니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토라를 잘 아는 율법에 능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과 달리, 그는 같은 성경을 읽고도, 『처음에 남자를

만들고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몸의 지체가 된 교회”가 계시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녀가 결합해 하나되는 것은 신비이지만, 그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되는 신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신비일까요?

2

이브의 몸 속에 아담의 뼈가 들어간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가실 것을 계시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즉, 잠깐 죽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 보고 영국의 한 의사가 마취법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아, 사람을 죽였다가 살릴 수도 있구나. 숨이 안 끊어지고 살아날 수 있구나!” 한 것입니다. 사실, 마취법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실을,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 장 45 절에서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지만, 죽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취과 의사처럼 우리는 “마취되어있는 상태의 사람, 죽은 사람”을 살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말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걸 하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이걸 못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입니다. 아담의 갈비뼈가 이브의 몸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에겐 문제가 없다◀

그리스도가 안이 계시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번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신사랑이라는 67 세 난 거둬들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분이 거둬들이니까 혼자 어디를 가든 무섭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천사가 따라다닙니다. 어떤 분이 한라산에 처녀의 몸으로 기도원을 세웠는데,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짐승 소리에 무서워 죽겠더라고요. 30 도 안된 처녀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거기 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요. 그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데, 천사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때부터 하나도 무섭지 않았답니다. 그 분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코비나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왔었지요. 저보고 풀러에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부흥사가 되면 하나님이 많이 쓰시는 유명한 부흥사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쓰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다르게 쓰신다고 하셔서 동의하지는 않았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사망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것을 쓴 것이 신약입니다. 우리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5 장 14 절입니다. 이 말씀은 준비한 것이 아닌데 강해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요. 아멘?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지만, 우리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는 다시 사신 그 분을 믿으니깐 그 분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살아납니다. 모형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지만, 또 한 사람 때문에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으라◀

성경에서 오실 분은 메시아밖에 없지요.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세컨 네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히브리어 말이 “메시아”이고, “구원자”란 뜻입니다. 주(Lord)는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3

사도행전 2 장 36 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Lord)와 그리스도(CHRIST)가 되게 하신 것이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죽음 이전에는 예수,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 흔하지요. 한국 사람은 안그렇지만, 남미 사람 열 명 중에 하나는 이름이 ‘예수, 헤수스’ 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짐승이 되지 말고 존귀한 사람이 되라◀

아담의 갈비 뼈를 이브의 몸 속에 집어넣은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그 분의 멤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 장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닌 신랑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인 교회의 관계로 분명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멤버-그리스도의 지체인 교인은 함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침례교는 구원 받지 못한 사람, BORNAGAIN 이 안 된 사람들은 따로 앉는 자리가 있고 헌금 바구니도 안 돌리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서는 물질을 받지 않습니다.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찬송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걸 전부 다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축복입니다. 성경을 읽고 자세히 나누어 공부해서 이 축복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축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 지 못하니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짐승이 아닌 진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헐리웃에 가보세요. 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보세요. 헤어스타일도 멋지게 하고 멋진 옷을 입고 노래도 잘하지만 그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카메라 앞에선 그럴듯해도 뒤로 가서는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합니다. 인기와 명예를 누리는 그들은 겉으로 부유하고 존귀해보이나 사실은 동성연애 등을 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다른 여러 방면으로 출세하고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존귀해지고 인정을 받는다하더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멸망하는 짐승 같은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이 그렇게 안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